

로컬포커스

김제시체육회 출범 첫 이사회

김제시체육회(회장 이진식) 통합 후 첫 이사회가 지난 28일 새롭게 선임된 임원진과 체육인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자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제시체육회가 통합출발하게 된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규약제정보고, 임원선임보고, 2016년 주요사업 현황보고 및 사무국장 임명동의, 각종 규정제정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고문 자원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김제시체육회에 새로이 구성된 임원진은 조송근 전)김제시생활체육회장을 상임부회장에 김제시교육지원청 김효순 교육장을 포함한 7명을 부회장에 선임하였으며, 이사회에는 장병욱 이사외 34명을, 조영진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에 선임하였으며, 사무국장에는 조수현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김제시체육회장인 이진식 시장은 인사말에서 '김제시체육회 임원으로 선임되고 체육활성화에 앞으로 4년간 함께하게 된 임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김제체육이 강한 체육으로 새로운 변화와 체육 꿈나무들의 미래의 희망을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이번 이사회에서 김제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농기센터, 과수재배농가

돌발해충 방제 종합교육 실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지난 27일 부안군 관내의 과수재배(사과·배)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사과·배)분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 과과수협회 이사인 장한익 박사가 고품질의 과수 생산을 위해 관찰성과 관련하여 수분 및 관리와 화상 병 및 외래·돌발해충의 예방과 방제법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전년도에 지나 줄기 등에 형성된 궤양의 끝부분과 눈, 건전한 나무조직에서 월동 후 꽃, 잎을 거쳐 줄기나 과실을 침해되며 시들어 불에 탄 듯 갑자기 변해 고사하게 되는 병으로 알길 작업 시 농 작업 도구를 소독 및 석화유황합제 살포 7일 이후에서 꽃눈발아직전과파개 이후 5일 전후에 배화상병 등록약제를 살포해야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김제시장애인복지관(관장 강정원)에서는 지난 27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68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 행동도우미 23명과 복지일자리 참여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소방서의 도움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장애인기 사업성과 평가와 하반기 사업 개요 및 추진절차, 참여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참석자들은 "차별화된 전문교육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상호간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소방대원이 직접 시연한 안전교육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제시주민복지과(과장 남궁행원)는 지난 1월부터 장애인과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6여여인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와 사회복지기관에 행정보조 업무와 환경지킴이 활동을 수행하는 70여명의 장애인일자리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 인식개선,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평선 축제는 올해로 (주)GS리테일(5월 2일)과 (주)라리스핀(7월 15일)에 이어 임실치즈농협과 후원사 업무협약을 세 번째 체결하게 되었다

지평선축제-임실치즈농협 업무협약

김제시 올해 3번째 스폰서십 확보... 수익성 지속적 강화 추진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장 정희운)와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 임실군 임실을 소재)이 28일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5년 연속 대표축제 도약과 상호간 마케팅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스폰서십을 체결하였다.

대한민국 전통농경문화를 현대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4년 연속 대표축제에 오른 김제지평선축제는 앞으로 글로벌 축제제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수익성 강화 차원에서 김제지평선축제의 이미지 및 지역성과 부합하고 상호간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견실한 중견기업과의 지속적 스폰서십

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로 (주)GS리테일(5. 2)과 (주)라리스핀(7. 15)에 이어 후원사 업무협약을 세 번째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임실치즈농협은 1967년 한국 최초로 치즈공장을 설립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치즈 연구개발과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최대, 유일의 낙농 조합원 중심의 치즈 전문기업으로 피자치즈, 요거트 등을 주력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와의 스폰서십 체결을 통해 자사 생산 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판매관을 운영하게 된다.

임실치즈농협 설동섭 조합장은 "대한민국 최고 빈월에 오른 김제지평선축제와의 스폰서십 체결을 통해 김제지평선축제 홍보는 물론 기업 및 제품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익 창출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정희운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장은 "금년은 김제지평선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한 전환점에 있어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금년 3번째로 스폰서십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호간 홍보마케팅 효과와 수익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자부심을 보여 드리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융복합 6차산업 온·오프라인 체험 교육

주민 40여명 참여

부안군이 전북도 6차 산업화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체험 전문교육이 지난 21일 27일 2회에 걸쳐 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6차 산업화 전문교육은 6차 산업화를 진행 및 계획 중인 경영체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6차 산업활성화센터 주관으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체험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을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군은 융복합 6차 산업화를 준비 중인 경영체(부안, 행안, 계화, 보안, 진서, 백산, 하서, 위도)는 1차(6차 산업화의 이해 / 농협 하나로클럽 입점 프로세스)에, 6차 산업화를 추진 중인 경영체(주산, 동진, 상서, 철로, 변산)교육으로 실시했다.

또 2차로 가공품을 활용한 체험과 축제 및 기획 및 마케팅 입점 프로세스 /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부안군은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맞춤형 교육을 2차에 걸쳐 실시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안군 경영체가 6차 산업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6차 산업화를 준비 중인 경영체가 올 연말까지 공동체를 구성하여 2017년 말까지 6차 산업화

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1읍면 1개소 이상 6차 산업화 마을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내장초등학교 자치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내장초등학교(교장 김홍규) 자치회는 지난 28일 내장상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32만5천500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지난 21일 내장초등학교 자치회에서 운영한 베품시장 수익금 전액으로, 학교 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싶다는 학생들의 뜻에 따라 기탁했다고 밝혔다.

내장초등학교는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교내 베품시장을 개최해오고 있다.

베품시장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물건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되팔고 수익금은 2년째 내장상동주민센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학생대표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동진면, 배롱나무 꽃길 조성 앞장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안군 동진 면이 명품 배롱나무 꽃길 가꾸기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동진 면은 사계절 꽃피는 명품 길 조성을 위해 소재지와 문 포로, 간재로 등에 7.8km에 붉은빛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배롱나무는 백일 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백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 배롱나무꽃이 동진 면 전역에서 다홍빛 세상을 만들고 있다.

동진 면 관계자는 관내 전역에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명품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롱나무는 삼라만상이 평범에 일사귀를 늘어뜨릴 때 유독 '선홍빛 속살'을 활짝 열고 하늘 향해 붉은·정염을 쏜 나무로, 소나무와 함께 예부터 선비로 비유되어 오고 있다.

선비의 깨끗하고 정갈한 절개의 표징인 듯 매끈한 속살을 숨김없이 드러낸 배롱나무는 혼탁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온 영락없는 동진 사람 들의 모습이다.

한편 배롱나무 꽃은 지열·소송의 효능이 있어 한방에서 월경 과다·장염·설사 등에 약용으로 쓰이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축제에서는 태인 현감 부임행차 재현과 군수 수령철사강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다

“은은한 연향 속 축제 즐겨요”

내달 13일 태인 피향정에서 다채로운 행사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으로 불리는 피향정(披香亭·보물 289호)에서 은은한 연향을 배경으로 피향정 문화축제가 열린다.

피향정문화축제제전위원회는 “내달 13일 태인면 소재 피향정 일원에서 통일산타시태 태산태수를 역임한 최치원선생의 유업을 추모하고 지역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제19회 피향정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에서는 태인 현감 부임행차 재현과 군수 수령철사강독, 농악대와 취타대 행렬, 현감부임 축하공연, 전통문화체험 문화제 사진전시회를 비롯해 어르신 무료중식과 이발봉사, 사생대회, 연예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를 후원하는 시는 “피향정의 아름다운 모습과 분홍빛 연꽃이

아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흥 속에서도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고고한 지대를 자랑하는 연꽃의 아름다움도 만끽하고 선비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태인면에서 열리는 축제도 마음껏 즐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연못에 핀 연꽃의 향기가 주위에 가득하다 하여 ‘피향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피향정은 창건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의 건물은 조선 숙종 때인 1716년 태인현감 유근이 다시 고쳐 지은 것이다.

신라말 고문 최치원 선생이 태산군수로 재직할 때 이 곳 피향정 주변 연못가를 거닐며 풍월을 읊었다고 전해지는데, 원래 피향정 앞뒤로 삼연지와 하연지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다고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이날보고회는 60여명이 참석해 대표음식 후보군 10종을 시작하고 평가했다.

대표음식개발 등 중간보고회

정읍시, 연구용역 1차로

정읍시는 지난 27일 대표음식 개발과 음식점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대표음식 전수를 희망하는 영업주와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 시식 참가단 등 60여명이 참석해 대표음식 후보군 10종을 시작하고 평가했다.

보고회는 용역을 맡고 있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수인교수한식조

리학과의 대표음식 개발사업 관련 진행 전반 및 대표음식 후보군에 대한 메뉴개발 배경 발표를 시작으로 대표음식 시식과 품평 선호도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소고기를 이용한 음식 5종과 돼지고기,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5종, 모두 10종의 음식을 시식하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쌍화차삼합’과 ‘사파맥적’, ‘귀리떡갈비’가 제일 높게 나와 정읍시 대표음식으로 선정됐다.

/정읍=김대환기자